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 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남승연**

◁ 요약 ▷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 성과 간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로컬 파트너십이 노동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자활사업 집행조직의 네트워크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이론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활성공률에 대하여 네트워크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결과적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취·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과향상 방안을 제시하였고, 네트워크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는 large N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자활성공률, 조직네트워크, 유대관계이론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 건국대학교 강사(serena75@konkuk.ac.kr)

1. 서론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정부나 시장이냐는 오래된 논쟁이다(Wolf, 1993). 복지혼합은 양자택일의 관점이 아닌 역할 결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복지공급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환경변화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복지혼합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혼합은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시장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신동면, 2001)¹⁾.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복지혼합 관점보다는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혹은 파트너십 전략(Gilbert, 2000; Bennett, 1990)에 가깝다.

로컬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 고용 및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과 영향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방안이다(OECD, 2001). Goldsmith와 Eggers(2004)는 환경재건 사업에서 모금확보의 성공요인으로 전략적 파트너를 파악하고 이들을 연계시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설계와 전달에 있어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은 지역사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복지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이상록, 2001). 특히, OECD(2001)의 파트너십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협약이나 협력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동통합 정책에 있어서 협력체계의 중요성은 참여자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어떠한 측면에서 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통합정책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면

¹⁾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혼합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혼합에서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동면, 2001).

서 시행되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활사업은 낮은 성과로 인해 프로그램의 취지마저 저평가 되어 왔으며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연구결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십과 자활사업 성과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통한 자리매김이 가능하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공급 주체들 간의 역할을 결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다시 이 문제는 복지 공급과정에서 각 공급 주체들에게 적절한 역할은 무엇이며, 공급 주체들 간에 어떻게 협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²⁾의 문제로 귀결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그리고 이 복지 거버넌스의 실천적 방안으로 로컬 파트너십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 외에 비공식부문과 비영리 자발적 부문의 네트워크, 또는 민·관 파트너십, 혼합복지경제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 응용될 수 있다(Cochrance,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동통합에서 로컬 파트너십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성과와 집행조직인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컬 파트너십이 노동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자활사업 집행조직의 네트워크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아중심연결망 분석을 함으로써 집행조직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²⁾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 간의 자기 통치적 네트워크(Stoker, 1998), 혹은 국가·시장·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수평적 복합조직으로 정의된다(Jessop, 2000).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하나의 통치방식이자 네트워크 체계로 이해된다(원구환, 2003; 이도형, 2004; Rhodes, 1996).

2. 이론적 논의

1) 사회네트워크이론과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분야에서 네트워크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활용되면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김준기·이민호, 2006).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시적 수준의 자아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개별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연구형태로 수행되었다(Provan & Kenis, 2007).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적 개념을 조직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조직 간 관계, 즉 조직의 네트워크 연결망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Marsden, 1990).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조직 차원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특성은 관계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된다(Gulati, 1998; Burt, 1992; Granovetter, 1973; Higgins & Kram, 2001). 관계적 특성은 네트워크의 응집 정도를 보여주는 관점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조직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연결된 관계를 강조한다. 구조적 특성은 네트워크 내의 위치를 보여주는 관점으로, 조직이 네트워크상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조적 위치에 의한 정보 가치에 중점을 둔다. 네트워크의 관계적 특성의 경우, 그것이 강한 연결 관계와 약한 연결 관계 모두 조직의 효과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강하게 연결된 관계는 행위자간 접촉 빈도가 높은 관계로, 이러한 관계라면 행위자들 간에 신뢰가 유지되고 협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제된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Uzzi, 1997; Larson, 1992), 조직 효과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oleman(1988)은 닫힌 관계, 즉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밀집된 네트워크 속에서 행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 효과성이 증가한다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약하게 연결된 관계는 행위자간 접촉 빈도가 낮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오히려

접촉빈도가 낮은 파트너에 의한 이질적이고 신선한 정보효과가 더 크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ranovetter(1973)는 약한 유대이론(weak-tie theory)³⁾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로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이득을 취하기가 어렵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파트너를 나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대방들도 이미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서는 오히려 새로운 이익 획득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점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서 강력하게 입증된 바 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직 기회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구직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상호간에 존재와 역할 정도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행위자가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자활센터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다양한 정보를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취업관련 정보 수집과 다양한 취·창업 통로를 개척 또는 연계하기 위해서는 Granovetter(1973)가 제시한 것처럼, 밀접한 소수의 관계자들과의 연결망 보다는 다수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약한 유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영리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조직이다. 반면, 직업훈련이나 취업정보를 필요로 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자원⁴⁾을 토대로 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는 비록 영리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물적자원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 연결망에 대한 자아중심연결망을 분석한 Granovetter(1973)가 제시한 관점에서, 정보나 취업연계망과 같은 무형자원의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가 보다 조직

3) “The strength of weak ties”(Granovetter, 1973).

4) 김상균·백종만·오정수(1999)에 의하면, 자원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누어지고 유형자원은 다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무형자원에는 다양한 정보가 해당된다.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네트워크의 구조적·관계적 특성이 조직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에 못지않게,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적 특성이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준기·이민호, 2006). 즉,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많은 학자들은 실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고 있다(Kickert, Klijin, & Koopenjan, 1997; O'Toole & Meier, 1999; Agranoff & McGuire, 2001; Goldsmith & Eggers, 2004).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히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강조하는 것이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활발히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조직 효과성은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조직일수록 리더의 네트워크 동원 및 활용 능력에 의존하게 되고, 자활사업의 성과는 정보와 취업 연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편, 사회복지조직에서 리더의 자원 동원에 대한 관심도나 활동 노력과 같은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성철, 2000; 김영중, 2000; 신준섭·최은미, 2004; Smith & Lipsky, 1993; Scribner & Green, 1983; Cordes et al., 1999)도 볼 수 있다⁵⁾. 특히, 신규자원의 개발노력과 기존자원의 관리는 조직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Scott, 1977; Grasty & Sheinkopf, 1982; Scribner & Green, 1983; Rosso, 1991; Smith, 1994). 그중에서 Rosso(1991)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미숙·김은정, 2005).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자활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효과성 연구는 조직 차원(Goodman & Pennings, 1977)과 네트워크(Provan & Milward, 2001) 차원 모두에서 수행되기 어렵다. 그러나 효과성은 연구자와 실행가 모두에게 단

⁵⁾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에 대한 리더의 자원 동원 및 활용 측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리더십이론에서 정의하는 리더십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과 용기와 영향력으로 구성원을 설득하고 조직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양희, 2006).

순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다(Provan & Kenis,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 개념의 복잡성과 확실한 연구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Provan과 Milward(2001)의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주제로 하는 본 연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Provan과 Milward(2001)는 내외부의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네트워크 효과성을 개별 조직,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비용이 너무 커서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없다면 네트워크 효과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직들 간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개별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조직의 성과는 곧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Provan과 Kenis(2007)는 학습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기획 역량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간 협력의 장점이 매우 많다(Alter & Hage, 1993; Brass et al., 2004; Huxham & Vangen, 2005)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네트워크 개념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에도 적용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기존의 수직적 관료제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영역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Rhodes, 1996; Peters & Pierre, 1998; 김준기·이민호, 2006).

사회복지부문은 이러한 공공영역 가운데서도 특히 네트워크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Rhodes, 1996; 김준기·이민호, 2006). 이는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정부주도하의 복지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실제로 효과적인 운영 기제로서 충분한 성과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준기·이민호, 2006). 즉, 네트워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효과성을 전제한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간혹 네트워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매우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가 다양한 관

점에서 연구되어왔다 하더라도, 조직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 조직 학자들이 다양한 조직적 배열보다는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다(Salancik, 1995). 둘째, 복합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대다수의 연구들은 탐색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Agranoff & McGuire, 2001; Goldsmith & Eggers, 2004; Huxham & Vangen, 2005; Bueren et al., 2003).

(1) 조직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가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최첨단 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는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Hagedoorn, 1993; 김용학, 2004).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조직 유형과 네트워크 형태, 기술이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Byington et al., 1991; O'Toole & Meier, 1999; 정진영, 1986; 이민정, 1999; 이민홍, 2002; 장연진, 2010). 그러나 김준기·이민호(2006), 최유미(2008), 김준현(2008)의 연구에서는 부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제시하였다.

[표 1]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내용
효과적	Provan & Milward(2001), Barney(2006), Provan & Kenis(2007), Alter & Hage(1993), Brass et al.(2004), Huxham & Vangen(2005) Rhodes(1996), Peters & Pierre(1998)	- 네트워크 참여조직의 개별성과는 곧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 수준 -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비용의 절감이 핵심 - 규모의 경제, 학습, 유연성, 위험/비용의 공동부담, 효율적 자원 활용, 기획역량 증진 - 공동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경쟁 완화 -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진입 - 경쟁력 강화,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제공
유보적	Salancik(1995), Agranoff & McGuire(2001), Goldsmith & Eggers(2004), Huxham & Vangen(2005), Bueren et al.(2003)	-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검증 부족 - 비용/시간의 과다 소요 및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조직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연구 부족 - 네트워크를 분석단위로 한 대다수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 머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네트워크가 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부분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조직네트워크가 효과적이라고 제시한 연구들에 비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린 연구들은 연구방법에서의 한계로 인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단일 사례연구를 수행하거나, 전반적인 네트워크 수준 및 형태라는 넓은 범위에서 분석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단위로 다수 사례의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에 대한 차별성을 갖는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을 변수화하여 자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2) 조직네트워크와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

자활관련 조직의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박정호, 2010; 홍경준 2000; 2002; 김재환, 2005; 2006; 김준현, 2009)는 많지 않다. 이들은 일단 계량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박정호(2001)는 부천시 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사례분석 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로 부천시에 자활사업을 위해 어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사례분석(case study)한 질적 연구이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은 계량적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활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계량적 네트워크 특성 분석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경준(2000)은 실직관련 민간 비영리 조직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기관들끼리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들끼리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의 조직들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주장하였다. 이어서 홍경준(2002)은 서울지역 31개 자활관련 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특성과, 조직 간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조직이 공공조직보다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었고 취업관련 조직들과 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의 단절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김재환(2005;

2006)은 수도권 지역 자활후견기관⁶⁾들 간 네트워크 활동 중심성 분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은 우선, 네트워크 범위에 있어서 자활관련 조직의 네트워크를 해당 조직 간, 또는 사회복지조직과 자활조직 간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조직이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없는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직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수준이거나, 네트워크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같이 네트워크 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김준현(2009)은 서울, 부산, 경북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와 기초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와 물자, 공동사업의 내용 및 성격과 같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부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역시 네트워크 범위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2개 유형의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만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맺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가 맺고 있는 모든 유형의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 네트워크 특성을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독립변수 중 자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다수사례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⁶⁾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3.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집행조직의 네트워크 특성과 자활사업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활사업의 최일선 집행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⁷⁾. 따라서 1996년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업이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에 해당된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32개소, 서울지역 31개소, 전남 22개소, 경남·경북에 각 20개소, 부산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2] 전국 지역자활센터 현황

지역	빈도	비율	지역	빈도	비율
서울	31개소	12.6%	경기	32개소	13.0%
인천	11개소	4.5%	경남	20개소	8.1%
부산	18개소	7.3%	경북	20개소	8.1%
대구	9개소	3.6%	전남	22개소	8.9%
대전	5개소	2.0%	전북	18개소	7.3%
광주	9개소	3.6%	충남	15개소	6.1%
울산	5개소	2.0%	충북	12개소	4.9%
강원	16개소	6.5%	제주	4개소	1.6%
총계			247개소		100.0%

⁷⁾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개 중앙자활센터와 7개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조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관리하는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가 지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 2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 변수 및 측정지표

(1) 자활사업의 성과

본 연구에서 자활사업의 성과는 경제적 자활의 최종결과지표와 과정지표로 측정한다. 과거에는 주로 소득변화(권승, 2005; 안서연, 2008; 오영훈, 2005; 김영미, 2002)나 수급권 탈피(권승, 2005; 보건복지부, 2012), 그리고 취업·창업과 같은 객관적 사건의 발생 여부(보건복지부, 2012; 임동진, 2001; 김교성·강철희, 2003)와 같은 결과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과는 투입·과정·산출 및 결과를 계획 또는 목표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거나 이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윤석 외, 2006). 이로부터 자활사업의 성과 개념을 유추하면, 과정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수나 참여자 수, 산출측면에서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수, 그리고 참여자 개인의 변화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취업률 및 빈곤율 변화 등의 영향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자립의욕 고취(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와 태도변화(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임진섭, 2010; 손능수, 2005; 이영철·김소정, 2009), 자존중감 및 자신감 증가(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박정호, 2010), 만족도 증가(임진섭, 2010; 이형하·조원탁, 2004; 박정호, 2010; 한성옥·박능후, 2007; 정재욱, 2011)와 같은 정서적 측면과 가족·친구·이웃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향상(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임진섭, 2010; 이형하·조원탁, 2004)과 같은 사회적 측면도 그 성과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인식과 연구 경향에도 불구하고, 자활의 정서적·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객관적 지표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중간 산출의 측면에서 자활공동체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수로, 최종 영향의 측면에서 자활성공률로 측정한다.

[표 3] 자활사업 성과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변수	측정지표	비고
산출 (output)	자활공동체 수	지역자활센터별 자활공동체 수	2011 지역자활센터 평가자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수	지역자활센터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수	
영향 (outcome)	자활성공률	$\frac{2011\text{년 상향이동자(수)} + \text{탈수급자(수)} + \text{취·창업(수)}}{2011\text{년 자활사업 참여자(수)}} \times 100(\%)$	

(2)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기존의 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 특성 파악을 위해 사용된 변수로는 네트워크의 규모(Podolny & Baron, 1997; Burt, 1997; Anderson & Jack, 2002), 범위(Morrison, 2002; Ibarra, 1995; 1997), 강도(Granovetter, 1973; Morrison, 2002; Seibert et al., 2001; Ibarra, 1997; 홍경준, 2000), 밀도(Burt, 1997; Podolny & Baron, 1997, Sparrowe et al., 2001; 홍경준, 2000), 중심성(박찬웅, 1999; 유태균 · 김자옥, 2001), 지위(Morrison, 2002; Ibarra, 1995), 중첩성(Ibarra, 1995; 구자숙, 2004; 김희연 · 한인숙, 2002) 등이 있다. 먼저 네트워크 규모는 얼마나 많은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개념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 전체의 수로 측정한다(Morrison, 2002; 김용학, 2007; 손동원, 2002). 네트워크가 정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Anderson(2002)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다양한 정보습득과 정보검색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Morrison(2002)도 정보 네트워크의 규모가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규모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규모를 현재 기관이 업무수행을 할 때 연계되어 있는 조직 수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민간기업, 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및 부처, 지방정부,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종교기관, 고용지원센터, 자활공동체·자활기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를 나열한 후 각 조직 별로 몇 개의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빈도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행위자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 가로 측정한다(Morrison, 2002; Granovetter, 1973; Anderson & Jack, 2002; 김용학, 2007; 손동원, 2002; Anderson, 2002; Marsden 1990; Granovetter, 1973). 본 연구

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에 지역자활센터가 각 조직군별로 며칠간의 연계활동이 있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범위는 행위자가 접촉하는 집단의 다양성으로 측정한다(Marsden, 1990; Ibarra, 1997). 네트워크 범위가 넓으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수진, 2006). 만약, A지역자활센터가 맺고 있는 조직이 민간기업 2개, 시민사회단체 1개, 지방정부 1개이고, B지역자활센터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민간기업 1개, 시민사회단체 1개, 지방정부 1개, 교육기관 1개라고 하자. 네트워크 규모는 A센터와 B센터가 동일하게 4이지만, 네트워크 범위는 A센터의 경우 3이고 B센터는 4가 되어 B센터의 네트워크 범위가 A센터보다 더 넓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규모 측정을 위해 제시했던 조직군의 수를 범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라는 조직성격을 고려한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구직자 네트워크를 연구한 Granovetter(1973)에 의하면 약한 유대관계가 구직활동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보자원의 교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를 자원의 종류에 따라 자원교환유형과 정보교환유형으로 나누었다. 측정을 위한 설문은 김준현(2009)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정보교환유형은 아이디어·정보·회의·교육·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 정도로, 자원교환유형은 시설·장비·장소·차량·자금 등의 교류 정도를 측정하였고, 각각 6점 척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 4] 네트워크 변수와 측정지표

변 수	측정지표	참 고
네트워크 규모 (size)	행위자와 연계된 기관의 수	Morrison(2002)
네트워크 범위 (range)	행위자와 연계된 기관의 소속집단 수	Marsden(1990), Ibarra(1997)
네트워크 빈도 (frequency)	행위자와 연계된 기관과의 접촉 빈도	Ibarra(1997), Morrison(2002) Granovetter(1973)
네트워크 유형 (type)	- 정보교환: 아이디어·정보·회의·교육·워크숍 등의 교류	김준현(2009)
	- 자원교환: 시설·장비·장소·차량·자금 등의 교류	

(3)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리더의 역량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리더의 역량이 자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어떠한 구조적·관계적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측면이 네트워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소규모 조직일수록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ahlman(1996), Hart 외(1996)와 Austin 외(2006)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조직 내·외부의 자원 동원 및 활용 능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리더십이론에서 리더십을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설득하고 조직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김양희, 2006), 리더의 특성 또한 자원 동원 능력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리더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심 리더십과 과업중심 리더십으로 분류하여 이를 리더십 변수로 사용한다. 리더의 관계행위는 친밀감, 개인적 관심도나 직원 의견의 수용도로 측정하고, 리더의 과업행위는 절차 및 규정 준수, 결정권, 부하 평가 기준 정도로 측정한다. stogdill과 coons(1957)의 지표를 사용한다.

[표 5] 네트워크 관리자 역량 측정지표

변수	측정치표	참고
외부 자원 동원 능력	- 리더가 중요한 공급자·고객·경쟁자가 누구인지 아는 정도 - 리더의 명성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 - 리더의 능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도	Sahlman(1996) Hart et al.(1996) Austin et al. (2006)
외부 자원 활용 능력	- 리더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 - 리더가 다양한 외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	Sahlman(1996) Hart et al.(1996) Austin et al. (2006)
리더의 관계행위	친밀감, 개인적 관심도, 의견 수용도	stogdill & coons (1957)
리더의 과업행위	절차 및 규정 준수, 결정권, 부하 평가 기준	stogdill & coons (1957)

3)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자료를 토대로 한 네트워크 특성분석과 회귀분석의 세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행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 자활사업 현장의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장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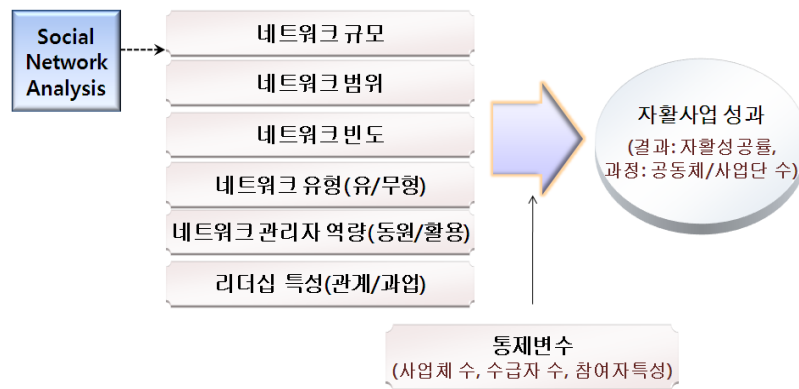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간 동안에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응답이 가능한 관리자급 이상의 구성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는 4월 25일에 팩스로 1차 배포하였고, 4월 30일에 이메일로 2차 배포를 하였으며, 5월 3일부터 2일 동안 전화로 설문독려 작업을 하면서 설문요청 이메일이나 팩스를 받지 못한 기관에는 3차로 이메일 재배포를 하였다. 설문응답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신 받도록 하였다. 한편, 인터뷰는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 기관은 수도권 지역 소재의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우선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과와 네트워크 이론 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 성과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관계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과, 기업가 투자자 등의 개인 및 집단 등이다(Wheeler et al., 2005). 또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에는 전체 네트워크, 양자 네트워크, 그리고 자아중심 네트워크가 있다. 이 중 자아중심 네트워크 구조 및 관계를 분석하는 요소로는 네트워크의 규모, 범위, 빈도, 강도가 있음을 문헌연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연구방법은 네트워크특성 분석이다. 각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중심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였다⁸⁾. 자아중심연결망은 자아(ego)를 중심에 위치시키고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을 표현한 네트워크(손동원, 2002)로, 응답자로부터 직접 관계 자료를 구하는 방법이다(김용학,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아중심연결망을 하나의 표본이자 분석단위로 설정하였고, 개별 지역자활센터로부터의 설문조사 응답자료를 통해 각 조직의 연결망에 관한 자료를 구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결과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활사업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에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모형



⁸⁾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유형은 분석초점에 따라 에고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 양자 네트워크(dyadic network), 전체 네트워크(total network)로 분류된다(손동원, 2002).

4. 실증분석 및 결과

1) 기초통계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을 배포하였고, 총 100부를 회수(회수율 40.5%)하여 불성실 응답 1부를 제외한 9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을 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서울지역이 14개소(14.1%)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 13개소(13.1%), 부산 12개소(12.1%), 전남 11개소(11.1%), 그리고 경남이 10개소(10.1%)의 순이었다. 이는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적 일치하여 적절히 샘플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집단에서는 경기 13.0%, 서울 12.6%, 전남 8.9%, 경남·경북 8.1%, 부산 7.3%의 순으로 지역자활센터가 분포하였다. 또한 제주(1.0%)와 울산(1.0%), 대전(2.0%)의 표본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모집단에서 제주, 울산, 대전 지역의 분포 순서 및 비율(1.6%, 2.0%, 2.0%)과 동일하다.

둘째, 예산에 따른 표본 분포를 살펴보았다. 무응답을 제외한 88개 지역자활센터의 예산 평균은 516,918천원이고, 최소값은 100,400천원 최대값은 2,839,169천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지역자활센터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평균 194.89명(Std. 69.362)이고, 99개 지역자활센터 중 가장 적은 참여자 수는 81명, 가장 많은 참여자 수는 376명으로 조사되어, 지역자활센터 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중 50세 이상 연령의 참여자 비율은 평균 26.3%(Std. 13.278)로 나타났는데, 최소 비율이 0.67%이고 최대 비율은 62.68%로 지역자활센터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은 평균 2.89명(Std. 2.670)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졸이상 참여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센터가 16개(16.7%)나 되었고, 가장 많은 대졸 이상 고학력 참여자 비율은 13.7%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의 특성

구 분		빈 도(비율)	구 분		빈 도(비율)
예산 (n=88)	200백만원 이하	32개소 (36.4%)	50대 이상 참여자 비율 (n=95)	10%이하	9명 (9.5%)
	200백만원~ 500백만원 이하	35개소 (39.8%)		10% 초과~ 20% 이하	23명 (24.2%)
	500백만원~ 1,000백만원 이하	5개소 (5.7%)		20% 초과~ 30% 이하	30명 (31.6%)
	1,000백만원~ 1,500백만원 이하	9개소 (10.2%)		40% 초과~ 50% 이하	19명 (20.0%)
	1,500백만원 초과	7개소 (8.0%)		50% 초과 이상	14명 (14.7%)
참여자 수 (n=99)	100명 이하	7명 (7.1%)	대졸 이상 참여자 비율 (n=96)	1% 이하	23명 (24.0%)
	100명 초과~ 150명 이하	20명 (20.2%)		1% 초과~ 3% 이하	37명 (38.5%)
	150명 초과~ 200명 이하	30명 (30.3%)		3% 초과~ 5% 이하	23명 (24.0%)
	200명 초과~ 250명 이하	25명 (25.3%)		5% 초과~ 7% 이하	5명 (5.2%)
	250명 초과	17명 (17.2%)		7% 이상	8명 (8.3%)
지역 (n=99)	서울·인천	14개소 (14.1%)	환경특성 평균 (표준편차)	인구 수	305,972.72 (297,251.7)
	대전·대구·광주	10개소 (10.0%)		수급자 수	8,212.95 (5,840.7)
	부산·울산	13개소 (13.1%)		사업체 수	19,483.11 (18,399.3)
	경기·강원·제주	20개소 (20.2%)		종사자 수	96,787.13 (101,705.3)
	충남·충북	11개소 (11.2%)		50대 이상 참여자 비율	26.3% (13.28)
	전남·전북	16개소 (16.2%)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	2.89명 (Std. 2.67)
	경남·경북	15개소 (15.2%)			

(2) 자활사업의 성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는 자활성공률이라는 최종 결과적 지표와 자활공동체 수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라는 과정적 산출지표로 측정하였다. 자활성공률은 참여자 중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자활성공자란 평가기간인 2011년 동안에 상하이동, 기초수급 탈피, 취업·창업을 경험한 참여자이다. 모집단인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 평균은 20.2%였던 반면, 99개 분석대상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자활성공률은 21.8%(Std. 6.674)로 나타났다.

과정적 산출지표인 자활공동체 수와 시장 진입형 사업단 수의 경우,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평균은 각각 4.68개와 3.01개이다. 한편, 분석대상 99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수는 평균 4.81(Std. 1.861)이고, 시장 진입형 사업단 수는 평균 3.14개(Std. 1.355)로 나타나 모집단의 성과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표 7]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 기술통계량

구 분	모집단(n=247)			표본집단(n=99)		
	최소값	최대값	평균 (Std.)	최소값	최대값	평균 (Std.)
자활성공률	.00	44.4	20.24(7.631)	5.10	44.4	21.81(6.674)
공동체 수	0	10	4.68(1.946)	0	9	4.81(1.861)
사업단 수	0	8	3.01(1.402)	0	6	3.14(1.355)

(3)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size)와 범위(range), 빈도(frequency), 그리고 유형(type)이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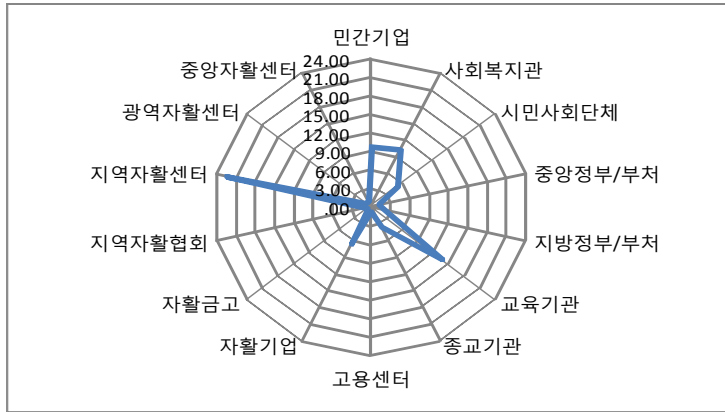
[표 8]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 범위, 빈도와 자원교류 유형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범위		네트워크 빈도		자원교류 유형		
규모범주	개수	범주범주	개수	빈도범주	개수	유형범주	유형자원	무형자원
30 이하	15	4 이하	5	15 이하	8	20 이하	8	1
30~60 이하	34	4~8 이하	16	15~30 이하	43	20~40 이하	62	48
60~90 이하	22	8~12 이하	53	30~45 이하	32	40~80 이하	22	42
90~120 이하	16	12 이상	25	45~60 이하	11	80 이상	5	6
120 이상	12	-	-	60 이상	5	-	-	-
합계	99		99		99		97	97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는 각 센터별로 전체 몇 개의 조직들과 연계되어 있는지로 측정한다. 99개 지역자활센터 중에서는 8개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최소 연계규모에서부터 총 621개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최대 연계규모 기관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평균적으로 타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 규모가 22.5개로 연계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초·중·고교 및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평균 14.0개), 사회복지관(평균 10.4개)과 민간기업(평균 9.9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관별 네트워크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활사업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정부,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협회,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타 지역자활센터 등이다. 그리고 학교 청소와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와의 사업적 측면에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A센터장).’는 응답을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왜 많은 타 지역자활센터와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이와는 큰 격차로 고용센터, 지역자활협회, 광역 및 중앙자활센터는 평균 1개가 채 되지 않는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기관 형태별로 존재 개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상위기관인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협회, 고용센터 등의 기관과의 연계가 평균적으로 1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들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보인다.

[그림 2] 지역자활센터의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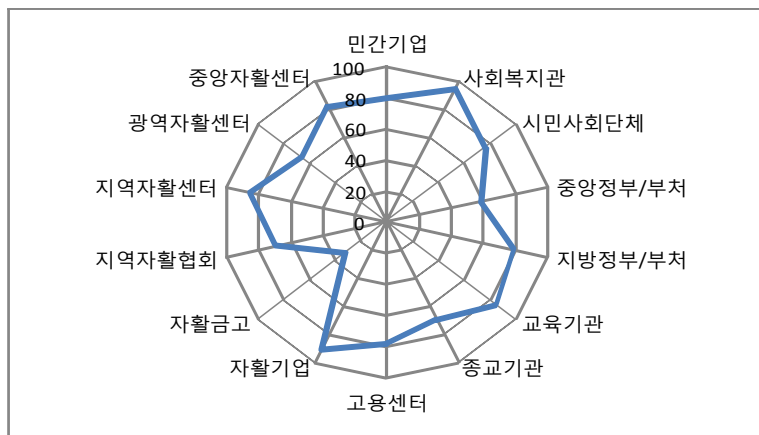


둘째,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 중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네트워크의 범위이다. 네트워크의 범위는 지역자활센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의 종류 수에 해당된다. 99개 분석대상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10.4개(Std. 3.146) 유형의 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자활센터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관계 기관 유형은 사회복지관(94개)이었다. 99개 지역자활센터 중 약 95%에 해당하는 지역자활센터가 1개 이상의 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급자 연계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자활공동체와 90%의 지역자활센터가 연계되어 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최종 산출이 자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각 지역자활센터가 이들 자활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약 10%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와의 연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후속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광역자활센터와의 연계가 약 66%의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수직적 집행조직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일부 광역자활단체를 지역자활센터가 경쟁상대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한국지역자활협회와 같이 자활사업의 집행기관들과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각 기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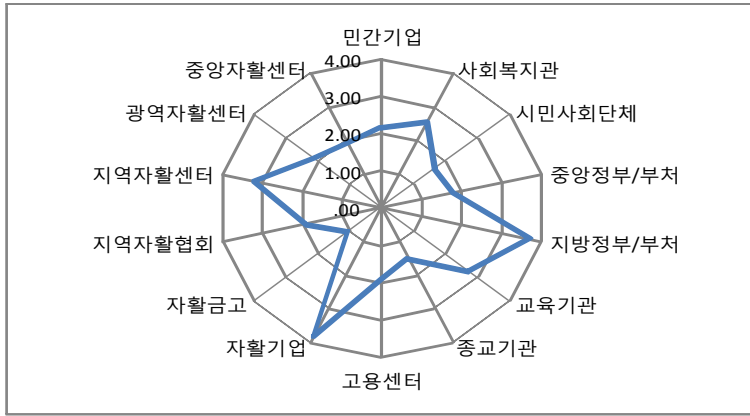
서로 경쟁상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호 협력 또는 공생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자활센터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광역자활센터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을 하거나 지역자활센터를 광역단위로 모아 워크숍을 실시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중앙자활센터에서는 현장에 대한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평가와 연구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연구결과를 실제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실용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거나 광역 단위로 지역자활센터의 협의체적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림 3] 지역자활센터의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범위



셋째,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빈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빈도는 각 관계기관 유형별로 일주일 간 며칠 정도의 관계가 있었는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99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빈도는 최소값 5에서 최대값 85.5까지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31.86(Std. 15.407)의 빈도로 관계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지역자활센터의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빈도



가장 접촉이 왕성한 연계기관은 자활기업·자활공동체(평균 3.85)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4일 정도 연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계 범위와 마찬가지로 자활사업의 산출 성과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와의 연계 빈도(평균 3.73)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활사업의 성과 관리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 지역자활센터와의 교류(평균 3.22)도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다른 기관 유형들과는 비슷한 수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범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자활협회와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와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때, 이들 기관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현장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총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견해를 들 수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광역자활센터이기 때문이다(B센터장).’ 나 ‘광역자활센터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연계성이 높다(A센터장).’라는 응답이었다. 하지만 ‘일부 광역자활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의 비중이 커으로써 지역자활센터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곳도 있다(B센터장)’라거

나, ‘광역자활센터에 대해 지역자활센터가 직접적인 경쟁대상으로 인식한다면 호감도가 낮을 수도 있다(A센터장)’는 의견을 통해, 광역자활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약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자활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견해를 볼 수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의 직접적인 교감은 많지 않다. 지역에서 인식하는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하는 상부기관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다(B센터장).’는 의견이나,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연계 정도나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A센터장).’는 응답이었다. 따라서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상위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치보다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협력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더욱이,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취·창업이나 소득 향상임을 감안한다면, 민간기업과의 연계빈도가 적은 것은 아쉬운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자원 유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를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우선 시설·장비·장소·자금과 같은 유형자원의 교류는 최소 14에서 최대 72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35.04 (Std. 11.857)이었다. 반면, 아이디어·정보·회의 등을 통한 무형자원의 교류는 최소 18에서 최대 74까지 나타났고, 평균은 41.62(Std. 11.683)로 유형자원의 교류보다 높았다.

시설이나 장비, 장소·차량 및 자금 등과 같은 유형자원의 교류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와 가장 활발한 연계가 일어나고 있는 조직 유형은 역시 자활기업·자활공동체(평균 3.98)였다. 아무래도 자활공동체나 자활기업은 열악한 재정적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는 이들에 대한 물적 자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대상기관은 지방정부(평균 3.54)이다. 지방정부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관계와 반대로 지역자활센터가 지원금을 받는 측면에서의 유형자원에 대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타 지역자활센터(평균 3.08), 민간기업(평균 2.67), 사회복지관(평균 2.66)과 물적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가 맺고 있는 관계 기관별로 무형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나 정보 차원에서의 교류, 또는 회의·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네트워크는 타 지역자활센터(평균 4.39)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교류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통해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자활공동체(평균 4.19)와 무형자원의 교류에서도 역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방정부(평균 3.65), 광역자활센터(평균 3.23), 한국지역자활협회(평균 3.21), 중앙자활센터(평균 3.13)와의 업무연계가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지역자활센터 조직네트워크와 자활사업 성과 간 관계 분석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와 자활사업 성과 간 관계 규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은 규모, 범위, 빈도 및 교류 유형으로 나누었고, 자활사업의 성과는 중간 산출 지표인 자활공동체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와 최종결과 지표인 자활성공률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수와 자활성공률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수가 자활성공률이라는 최종 지표로 가기 전의 과정적 성과지표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규모와 범위, 무형자원과 유형자원 교류 등 네트워크 빈도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특성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정 성과지표인 자활공동체 및 시장 진입형 사업단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네트워크 변수는 없었다.

[표 9] 지역자활센터 역량과 자활사업 성과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자활성공률	1									
2. 창업 수	.558**	1								
3. 네트워크규모	.462**	.130	1							
4. 네트워크범위	.288**	.159	.382**	1						
5. 네트워크빈도	.107	.069	.032	.076	1					
6. 무형자원교류	.207*	.092	-.006	.058	.528**	1				
7. 유형자원교류	.251*	.137	.109	-.017	.586**	.647**	1			
8. 네트워크관리	-.026	.019	-.021	.038	.054	.059	.062	1		
9. 관계중심리더	.291**	.102	.025	.086	.039	.100	.202*	.005	1	
10. 과업중심리더	-.086	-.027	.202*	-.112	.074	-.003	.154	.002	-.002	1

주) **p<0.01, *p<0.05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및 조직역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활성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과는 달리 자활성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적게 나타났다. 우선은 네트워크 규모가 자활성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활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Anderson, 2002; Morrison, 2002)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도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계중심적 리더 성향은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리더일수록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자활사업 센터장들은 자활사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자들과의 친화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리더 역시도 과업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요인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대졸이상 참여자 비율이 낮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증가하면서 오히려 자활성공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학력 동료들끼리의 친화력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자활사업이 본인이 참여해야 할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활성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F값은 4.253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모형으로 검증되었고, 설명력은 38.7%이며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창업 수 및 자활성공률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종속변수: 창업 수				종속변수: 자활성공률			
		B	베타	t통계량	VIF	B	베타	t통계량	VIF
(상수)		6.591	1.540	4.280		14.227	3.715	3.829	
네트워크	네트워크 규모	.002	.004	.552	1.297	.039	.009	4.409***	1.297
	네트워크 범위	.078	.090	.870	1.356	.112	.216	.520	1.356
	네트워크 빈도	.010	.021	.495	1.775	-.004	.050	-.080	1.775
	무형자원 네트워크	.009	.029	.312	2.030	.090	.070	1.276	2.030
	유형자원 네트워크	.010	.031	.310	2.416	.046	.075	.612	2.416
관리역량	네트워크 관리역량	.076	.246	.310	1.089	-.113	.593	-.190	1.089
	관계중심적 리더특성	.387	.259	1.494	1.188	1.895	.625	3.032***	1.188
	과업중심적 리더특성	.018	.264	.070	1.173	-1.104	.638	-1.731*	1.173
환경요인	수급자 수	.000	.000	2.009**	3.253	.000	.000	.396	3.253
	사업체 수	.000	.000	-1.262	3.039	.000	.000	-.155	3.039
	50대 이상 참여자 비율	-.022	.021	-1.064	1.294	-.033	.050	-.664	1.294
	대졸 이상 참여자 비율	-.252	.110	-2.297**	1.317	-.449	.265	-1.694*	1.317
R2(수정된 R2)		0.154 (0.029)				0.387 (0.296)			
F값(유의확률)		1.231 (0.277)				4.253(0.000)***			

주1) 창업 수: 자활공동체+시장 진입형 사업단 수

주2) ***p<0.01, **p<0.05, *p<0.1

끝으로, 자활공동체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졸이상 참여자비율과 수급자 수라는 통제변수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과정적 성과지표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네트워크이론을 토대로 자활사업의 집행조직인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이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로컬 파트너십이 노동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OECD, 2001)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통합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자활사업 집행조직의 네트워크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가설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와 범위가 커질수록 자활사업의 성과가 증가하리라는 것이었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했던 두 개 종속변수인 자활성공률과 창업 수(자활공동체 및 시장 진입형 사업단 수) 간의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지만, 자활성공률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는 네트워크 규모가 강력한 영향변수였다. 반면, 창업 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네트워크 규모와 범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개 종속변수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활성공률의 경우, 수급자의 상향 이동 및 탈 수급과 취·창업을 포함하는 지표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조직 네트워크가 취업 연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공동체나 사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자활 성과이기 때문에 조직의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나 사업단 창업 수는 지역자활센터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아(최소 0개에서 최대 9개)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발견하기 힘든 원인도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부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제시(김준현, 2009; 김준기·이민호, 2006; 최유미, 2008)하거나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유보적 결론(Salncik, 1995; Agranoff &

McGuire, 2001; Goldsmith & Eggers, 2004)을 내린 것처럼, 조직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에서 연계된 기관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 수록 자활사업의 성과가 증가하리라는 것이었다. 네트워크 빈도는 전문화된 네트워크의 규모나 범위와 달리 강한 유대관계를 가정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자활성공률에 대해 네트워크의 규모는 강력한 영향요인인 반면 네트워크의 빈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Granovetter(1973)의 약한유대이론을 반증해 준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의 정보교환형 네트워크가 유형자원 교환형 네트워크보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임을 연구가설로 수립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는 무형 자원의 교류가 유형자원의 교류보다 자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가설이 지지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네 번째 가설은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지역자활센터 리더의 역량이 증가하면 자활사업의 성과가 향상되리라는 것이었다.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관리역량은 자활사업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관계지향적 리더십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수행 조직에서 리더가 어떠한 성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자활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행조직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소득과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성과에 참여자 인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이형하·조원탁, 2004; 김교성·강철희, 2003). 또한, 중앙정부에서 설계하여 동일한 정책·프로그램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적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자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집행조직의 역량에 달려있고,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조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활발한 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선정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 간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계가 어떻게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다른 지역자활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자활센터는 보다 다양한 기관과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네트워크 규모와 범위는 자활사업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직까지는 주로 간접적이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는 수급자들에 대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연대 강화가 바로 자활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특성 분석에서 연구 환경에서의 제약으로 자아중심연결망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조적·관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보다 성숙한 성과지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공식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자활성공률은 상향이동자, 취창업자, 탈수급자 각각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만큼 분리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규모 변수 외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자 했다는 점, 프로그램 요인이나 인적 요인과 같이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 아닌 집행조직의 특성에 주목하여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또한, 대부분 사례연구에 머물고 있는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분석을 large N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점과 중간 과정적 산출지표를 자활사업의 성과로 인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보다 성숙한 자활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특성 변수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총체적 점검을 시도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 구자숙 (2004). 직장 내 승진에 대한 연결망 효과의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8(1), 1-20.
- 권승 (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179-205.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2호, 5-32.
- 김미숙·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5-40.
- 김상균·백종만·오정수 (1991). 지역사회자원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모형개발연구. *사회복지연구*, 3, 19-42.
- 김양희 (2006). 여성, 리더 그리고 여성 리더십.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중 (2000). 사회복지조직 리더의 외부환경 관리에 관한 역할.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3호, 37-60.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재환 (2005).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 중심성 비교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4), 1-36.
- 김재환 (2006).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 간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2): 135-171. 한국노동연구원.
- 김준기·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 김준현 (2008). 지역자활센터의 집행특성이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정성과지표(APM)모형에 의한 자원,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현 (2009).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307-333.
- 김희연·한인숙 (2002).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99-122.
- 박정호 (2001). 자활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6(1), 39-52.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자활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손능수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729-760.
- 손동원 (2002). *사회네트워크분석*. 서울: 경문사.

- 신동면 (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5호, 220-249.
- 신준섭 · 최은미 (2004).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의 후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 91-110.
- 안서연 (2008). 자활직업훈련 사업의 임금 효과 분석: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사회복지연구, 37: 171-197.
- 오영훈 (2005). 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4(3): 317-341.
- 원구환 (2003).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과 발전. 이은구 외. 로컬 거버넌스, 1-26. 서울: 법문사.
- 이도형 (2004). 로컬복지 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3): 221-238.
- 이민정 (1999). 가톨릭 여성복지조직의 조직간 관계와 조직효과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홍 (2002). 사회복지관 간의 협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 (2001). 자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동향, 제32호, 12-17.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21호, 105-136.
- 이영철 · 김소정 (2009). 자활사업 집행기관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2), 227-252.
- 이형하 · 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호, 217-244.
-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 임진섭 · 장용언 · 공정석 (2010).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이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3), 271-297.
- 장연진 (2010).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313-343.
- 전수진 (2006). 남성관리자와 여성관리자의 사회 네트워크 비교 분석. 산학경영연구, 9(1), 1-2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IT 환경 하에서의 복지 거버넌스.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원오 · 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3), 35-67.
- 정재욱 (201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참여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1(1), 127-156.
- 정진영 (1986). 사회복지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조직과 환경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유미 (2008).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3), 133-183.

- 한성욱·박능후 (2007). 자활사업 모형별 효과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연구*, 10(1), 85-105.
- 홍경준 (2000). 실직관련 민간 비영리 조직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 연구: 의사소통 관계와 실직관련 활동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1), 267-290.
- 홍경준 (2002).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7-33.
- 황성철 (2000).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173-191.
- Agranoff, R. & McGuire, M. (2001). Big questions in public network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3).
- Alter, C. & Hage, J. (1993).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Newbury Park. Sage.
- Anderson, A. R. & Jack, S. L. (2002). The Articulation of social capital in entrepreneurial networks: a glue or lubricant?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4(3), 193-210.
- Austin, J., Stevenson, H. & Wei-Skillern, J. (2006). Social &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21.
- Barney, J. B. (2006). *Organizational economic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s and economic analysis*. Handbook of Organization Studies. Sage Publications Ltd.
- Bennett, R. J. (1990).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markets: toward a post-welfare agenda?* Oxford: Clarendon Press.
- Brass, D. J., Galaskiewicz, J., Greve, H. R., & Tsai, W. (2004). Taking stock of networks and organization: a multileve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6), 793-817.
- Bueren, E. M., Klijin, E., & Koppenjan, J. F. M. (2003). Dealing with wicked problems in networks: analyzing an environmental debate from a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2), 193-212.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yington, D., Martin, P, DiNitto, D., & Maxwell, M. (1991). Organizational affiliation and effectiveness: the case of rape crisis center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5(3), 83-103.
- Cochrance, A. (1998). Globalization, pragmentation & local welfare citizenship. In Carter, J.(ed.), *Post-modernity and fragmentation of welfare*, 252-266. London: Routledge.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ep), 95-120.

- Cordes, J. J., Henig, J. R., Twombly, E. C., & Saunders, J. L. (1999). The effects of expanded donor choice in united way campaigns on nonprofit human service providers in the Washington, D. C., Metropolitan a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2), 127-151.
- Gilbert, N. (2000). Welfare pluralism and social policy. in Midgley, J., Tracy, M. B., & Livermore, M. (eds.), *The Handbook of Social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s.
- Goldsmith, S. & Eggers, W. D.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The Brookings Institution.
- Goodman, P. S., & Pennings, J. M. (1977). *New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A: Jossey-Bass.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Grasty, W. K. & Sheinkopf, K. G. (1982). *The annual fund: how to grow perennial rewards from an annual campaign?* Los Angeles, C.A: The Granstmanship center.
- Gulati, R. (1995). Social structure and alliance formation patterns: A longitudin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619-652.
- Hagedoorn, J. (1993). Understanding the relations of strategic technology partnering: international modes of cooperation and sectoral differe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371-385.
- Hart, M. M., Stevenson, H. H., & Dial, J. (1996). Entrepreneurship: a definition revisited. In bygrave, W. (Ed.),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1995.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 Higgins, M. C. & Kram, K. E. (2001). Reconceptualizing mentoring at work: a developmental network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64-288.
- Huxham, C. & Vangen, S. (2005). *Managing to collaborate*. London: Routledge.
- Ibarra, H. (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673-703.
- Ibarra, H. (1997). Paving an alternative route: gender differences in managerial network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0*, 91-102.
- Jessop, B. (2000). Government failure. In Stoker, G.(e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London: Macmillan Press Ltd.
- Kickert, W. J. M., Klijin, E., & Koopenjan, J. F. M. (1997). *Managing complex networks: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Sage Publication.

- Lasrson, A. (1992). Network dyads in entrepreneurial settings: a study of the governance of exchange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76-104.
- Marsden, P. V. (1990). Network data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 Morrison, E. W. (2002).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 O'Toole, L.J. & Meier, K. J. (1999). Modeling the impact of public management: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ntex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4).
- OECD. (2001).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OECD.
- Peters, B. G. & Pierre, J.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223-243.
- Podolny, J. M. & Baron, J. M. (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October), 673-693.
- Provan, K. G. & Kenis, P. (2007).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229-252.
- Provan, K. G. & Milward, B. (2001).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14-423.
- Rhodes, R. A. W. (1996). From institutions to dogma tradition, eclecticism and ideology in the study of british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6), 507-516.
- Rosso, H. A. (1991). *Achieving excellence in fundraising: a comprehensive guide to principles, strategies, and method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Sahlman, W. A. (1996). Some thoughts on business plans. In Sahlman, W. A., Stevenson, H. Roberts, M. J. & Bhide, A. V. (Eds). *The entrepreneurial ventur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Salancik, G. (1995). Wanted: a good theory of network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345-349.
- Scott, C. A. (1977). Modifying socially conscious behavior: The foot-in-the door techniq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56-164.
- Scribner, S. & Green, F. (1983). *Asking for money*. L.A, C,A: The Granstmanship Center.
- Seibert, S. E., Kraimer, M. L., & Liden, R. C.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219-237.
- Smith, C. (1994). The new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105-116.
- Smith, S. R. & Lipsky, M. (1993). *Nonprofit for hire: the welfare state in the age of contract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parrowe, R., Liden, R. & Kraimer, M. (2001).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316-325.
- Stogdill, R., & Coons, A. (1957). *Leader behavior: its descrip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Monograph No.88).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Bureau of Business Research.
- Stoker, G.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governance. In Pierre, J.(ed.),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34-51. London: Macmillan Press Ltd.
- Uzzi, B. (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 35-67.
- Walker, G. (1985). Network position and cognition in a computer software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 103-130.
- Wheeler, D., McKague, K., Thomson, J., Davies, R., Medalye, J., & Prada, M. (2005). Creating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7*(1), 33-40.
- Wolf, C. (1993).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Rnad.

Organizational Network and Performance of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in Korea

Nam, SeungYe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network and performance of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Under the increasing attention on network of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bout organizational network for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Using survey and secondary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organizational network impacts on the performance of Self-sufficiency program. Based on this finding, I suggest that organizational network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mproving the ratio of being self-sufficiency.

This study has contribution in that it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kfare program in Korea and suggeste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pecifically, it suggested that to improve its performance, community-based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in a view of network.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achievements as well. It conducted the large N study considering the network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Key Words: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Self-Sufficiency Program, Ratio of being self-sufficiency, Organizational Network, weak-tie theory

◆ 2012.10.25. 접수 / 2012.11.21. 1차 수정 / 2012.11.30. 게재 확정

* Ph. D. Instructor, Konkuk University(serena75@konkuk.ac.kr)